

아동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기초한 프랑스 육아법 연구 : Françoise Dolto를 중심으로

조희연* · 이화도**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인들의 대모라 불리는 아동정신분석가인 프랑수아즈 돌토(Françoise Dolto)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육아법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돌토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신분석가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유일한 인물이며, 정신분석과 소아과를 접목시켜 독창적인 아동정신분석의 기틀을 확립했다. 그녀는 영유아와의 대화를 통한 소통을 중시했으며,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갓난아기조차도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존재로 인식했다. 연구대상으로 국내에 출판된 프랑스 육아법에 관한 도서와 프랑스 육아를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공통의 주제를 분류한 후 네 개의 핵심어-절제·기다림·인내, 자율과 규칙, 권위와 존중, 독립성과 자립심-를 도출했다. 이 핵심 주제들을 돌토의 의사소통, 아기주체(Infans), 거세, 주체와 타자, 욕망 등의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육아법을 통해서 한국 부모들의 육아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프랑스 육아법(French Method of Childrearing)
아동정신분석(Child Psychoanalysis)
프랑수아즈 돌토(Françoise Dolto)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식 육아법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3~4년 전부터 프랑스 육아법에 관한 서적들이 쏟아지듯 출간되었고, 지속적으로 육아 부문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아이들의 촉감과 색채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프랑스식 모래놀이와 물감놀이 등의 촉감완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유승호, 2014. 12. 9).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한국에서 일어

*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frjhy@hycu.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저자

나는 이 같은 현상은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프랑스식 자녀교육법에 관한 서적들이 국내에 간간히 소개되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Filliozat, 2011; Halmos, 2013). 국내에서 프랑스식 육아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13년 Druckerman의 책*이 이슈가 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프랑스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는 미국 엄마의 이야기에서 한국 부모들은 그동안 그들이 지향해왔던 자녀 교육법과 양육관이 미국식 양육법과 많이 닮았다 것과 작가가 느꼈던 자녀 양육의 문제점들이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중심에는 아이가 있고, 가정의 모든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맞추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한국 가정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친근한 생활 방식이다. 이처럼 지나칠 정도의 자녀중심 생활 패턴에 익숙한 한국 부모들은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프랑스식 육아법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자녀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대하는 프랑스 부모들은 잠투정, 식사, 놀이, 예의범절,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자녀의 성장 과정동안 부딪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한국의 양육법과는 매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프랑스 부모는 자녀가 서툴더라도 혼자 해내는 과정을 응원하며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자녀가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랑스식 양육법에서 우리는 강압적인 방법보다 훨씬 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이의 자제력, 자립심과 인내심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아동에 대한 인식관과 교육관이 처음부터 이와 같았던 것은 아니다. 중세 말기부터 18세기까지 예술, 문학작품 등을 분석하여 각 시대의 아동관을 연구했던 철학자 P. Ariès(2003)에 의하면, 중세에는 아동기에 대한 의식이 없었으며, 아이들은 축소된 어른으로 그려질 정도로 아동의 독자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추구한 68 혁명** 이후 부모가 자녀를 동등하게 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프랑스 아동정신분석가인 Dolto에 의해 프랑스인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져 아동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보게 되었다. Dolto는 아동 상담치료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녀만의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 프랑스 대중에게 아동정신분석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정신분석가(Dolto, 1986, 2004)로 알려진 그녀는 프랑스에서 아동의 이해와 교육에 가장 대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정신분석적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문제들을

* 프랑스 아이처럼(원제: Bringing up bébé : one American mother discovers the wisdom of French parenting)

**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변혁운동으로 1968년 3월 미국 베트남 침공에 항의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파리 사무실을 습격한 대학생 8명이 체포되자 그 해 5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항의시위가 이어지면서 발생하였다. 그 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겹치면서 프랑스 전역에 권위주의와 보수체제 등 기존의 사회질서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학교와 직장에서의 평등 등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었으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Lacan과 함께 프랑스 정신분석학의 대중적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프랑스가 ‘아동 교육의 천국’이 되는데 실천적 역할을 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Ledoux, 1995, 2003).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육아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프랑스 육아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Dolto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프랑스 육아법에 나타난 특징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프랑스 육아법에 대한 연구도, 아동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육아법을 다룬 연구도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육아(보육) 또는 자녀교육과 정신분석학의 만남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육아법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출판된 프랑스 육아법에 관한 도서와 프랑스 육아를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프랑스 육아법의 공통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서를 선정함에 따라 일반적 육아법으로부터 주제가 벗어난 도서는 제한하였다.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책은 프랑스 아이는 말보다 그림을 먼저 배운다(신유미, 사도니 벤치, 2015), 프랑스 엄마의 행복수업(다카하타 유키, 2015), 비싼 장난감 절대 사주지 마라(Laurence Rameau, 2013), 아이와 협상하라(Laurent Combalbert, 2014), 폭군 아이 길들이기(Didier Pleux, 2015), 좀 망가져도 난 행복한 엄마(Candice Kornberg Anzel, 2016)이다. 다음은 분석 대상 도서와 다큐멘터리 방송 목록이다.

표 1.

분석대상 프랑스 육아법에 관한 도서 및 방송 목록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사	부제
1	이 세상에 이유없는 말썽꾸러기는 없다	이자벨 필리오자, 이누크 뒤부아	2011. 11	프리미엄 북스	태어나서 만 5세까지 투정과 반항, 말썽에 숨은 우리 아이 행동의 비밀
2	엄마, 왜 그런거예요?	클로드 알모	2013. 02	엑스오북스	프랑스 엄마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3	프랑스 아이처럼	파멜라 드러커맨	2013. 03	북하이브	
4	프랑스 아이들은 왜	캐서린 크로퍼드	2013. 06	아름다운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		
5	프랑스 아이는 편식하지 않는다	캐런 르 비용	2014. 04	지식의 날개	프랑스 육아법의 핵심
6	프랑스 엄마처럼	오드리 아쿤 이자벨 파요	2014. 07	북라이프	일등이 아니어도 행복한 프랑스식 긍정 교육법
7	프랑스 엄마 수업	안느 바커스	2014. 08	북로그 컴퍼니	소리지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말 잘 듣게 하는 100가지 방법
8	프랑스 엄마처럼 똑똑하게 아단쳐라	지젤 조르주, 샤를 브뤼모	2014. 10	아름다운 사람들	
9	프랑스 육아법	파멜라 드러커맨	2014. 10	경향BP	
10	프랑스 부모들은 권위적으로 양육한다	프레데릭 코크만	2014. 07	맑은숲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양육법
11	프랑스 육아의 비밀	안느 바커스	2015. 07	예문사	
12	내 아이와 소통하기	크리스텔 프티콜랭	2015. 11	나무생각	완벽한 부모는 없다
13	프랑스 뽀아뽀 육아법	최은주	2016. 05	알에이치 코리아	
14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프랑스 육아	안니카 외레스	2016. 05	북폴리오	
15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5부		2014. 11	EBS	행복한 훈육 프랑스 육아의 비밀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정한 프랑스 육아법에 관한 14권의 도서와 1개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후 소제목(소주제)을 중심으로 핵심 주제화된 내용을 분류하여 공통적 핵심 주제어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 규칙 영역의 ‘자율과 제한의 공존’ 과 ‘자율과 규율’ 그리고 ‘자율과 독재’ 는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써 선정한 도서의 소주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항목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표 2.

핵심 주제어 분류

핵심 주제어	내 용
절제, 기다림, 인내	잠깐 멈추기, 잠, 안아주기, 울음, 습관들이기, 좌절, 참을성, 지루함, 절제능력

자율, 규칙	식사예절, 식습관 교육, 자유와 제한의 공존, 칭찬, 벌, 틀과 규칙, Non(안돼!), 자유와 규율, 자유와 복종, 혼육, 가정교육, 생활지도, 생활윤리, 자율과 독재
권위, 존중	부모의 권위, 부모의 힘, 권위에 대한 존중감, 권위적 양육방식, 대화의 기술, 상호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거리 두기, 소통, 의견 존중, 예의
독립성, 자립심	자신감, 사회성, 용기, 책임감

도출된 4개의 핵심 주제어에 따라 프랑스 육아법의 내용을 분류하여 기술하고, Dolto의 아동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III. Dolto와 아동정신분석의 이해

1. 프랑스 아동정신분석의 역사

1) 아동정신분석의 시작

아동정신분석은 S. Freud(1856-1939)가 성인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시도한 이후 그 분석 영역을 아동(꼬마 한스)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하였다. S. Freud가 인간의 무의식에서 ‘아동의 성’을 발견한* 이후로 A. Freud(1895-1982)와 M. Klein(1882-1960)이 S. Freud의 저작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아동정신분석의 두 학파가 생기게 되었다. A. Freud가 이끄는 비엔나 학파와 M. Klein을 중심으로 한 영국 학파이다. A. Freud는 아버지 S. Freud의 이론을 교육학에 적용하여 정신분석학적 교육학을 입장에서 실천하며 교육자들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그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A. Freud, 1968). A. Freud와 이론적, 임상적인 현저한 대조적 입장에서 경쟁구도를 이루어 온 Klein은 S. Freud의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아동정신분석에 접근하였으나 Freud가 성인정신분석에서 출발하여 아동을 연구한 것과는 달리 아동을 직접 관찰하며 아동의 무의식적 갈등과 구조를 연구했다**. 또한 Klein(1955)은 놀이기법을 아동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아동정신분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프랑스 아이처럼(원제: Bringing up bébé : one American mother discovers the wisdom of French parenting)

** Klein은 유아적 기억상실을 넘어 Freud가 가지 않은 영유아(Infans) 분야를 개척하여 정신분석의 판도를 바꾸었다. 아동의 유아기적 존재가 전이를 통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 Klein은 그녀의 아동정신분석 이론을 학회에 발표하였고, Freud의 추종자들은 그녀가 Freud의 이론을 거슬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Klein은 아주 어린 아이(Infans)의 최초의 무의식에 도달하고자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무의식의 ‘출생’에 참여할 수 있었다(C. Geissmann-Chambon et al., 2004/2013, pp.257-258 참조).

2) 프랑스 아동정신분석의 선구자들

프랑스에 아동정신분석을 도입한 이들은 E. Sokolnica(1884-1934)와 S. Morgenstern(1875-1940)으로 이들은 A. Freud 사상의 연장선에 있었다. Sokolnica는 폴란드 출신 유대인으로 취리히의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석 기술을 쌓았다. Jung의 제자였으나 Jung과 Freud의 결별 시 Freud를 택했다. 1921년 프랑스로 이주해 파리의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석학을 도입시키고자 했으며, Laforgue 등과 1926년 파리 정신분석학회를 창립하였다.

Sokolnica의 제자였던 Morgenstern은 아동정신분석 분야의 이론과 임상 작업을 고안하였다. 폴란드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취리히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1924년 프랑스로 이주하여 아동 정신의학 대학병원에서 1925년부터 1940년까지 근무했으며, 15편의 논문과 1권의 책을 출판할 정도로 열정적인 학문 활동을 했다(C. Geissmann-Chambon et al., 2004, 2013). Morgenstern은 불안, 공포, 강박과 같은 아동 신경증은 성인 신경증과 같은 목적, 구조, 근원을 가지며,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본능적 성향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A. Freud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은 신경증에 걸린 아동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옳으며 신경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분석이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Klein의 입장을 비판했다(Morgenstern, 1928).

Morgenstern은 아동의 정신분석 시 자유연상을 얻기 어려운 어린 아동(10-12세)에게는 그림, 찰흙 빚기, 놀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독창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1926년 그녀는 합구증에 걸린 아동을 그림을 사용하여 치료하였고 그 아동은 몇 달 만에 완치되었다. 이후 그녀는 아동정신분석을 할 때 그림을 사용했다. 그림을 통해 무의식적 갈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림을 포함한 아동의 모든 창조적 활동(동화, 소설)에는 자신의 갈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은 이러한 예술적 창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도한다고 보았다. 또한 1930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놀이를 아동 신경증으로 들어가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라 밝혔다(Morgenstern, 1930). 아동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Morgenstern은 아동의 죄의식, 신비한 생각, 죽음의 개념, 공격 성향 등의 문제를 연구했다*.

2. Dolto와 아동정신분석

1) Dolto의 아동정신분석자로서의 여정

J. Lacan(1901-1981)과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 정신분석가인 Dolto(1908-1988)는 파리의 가톨릭 부르주

* Morgenstern은 1940년 나치의 파리 점령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G. Heuyer 교수의 협력자로서 아동 정신의학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프랑스 아동정신분석에 큰 공헌을 하였다.

아 가문에서 5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 엄격하고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여덟 살부터 ‘가족 내의 일들(histoire de famille)’이 질병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주목했으며,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은 아프지만, 그것이 진짜 병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의사인 ‘교육 의사(médecin d’éducation)’가 되고 싶어했다(Dolto, 1986, 2008).

그녀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열두 살에 겪은 할머니의 죽음이었다. 그녀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언니가 죽었다는 어머니의 말로 인해 Dolto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정신분석에 입문할 때까지도 그 죄책감은 계속 되었으며, 이 경험은 그녀가 Laforgue*에게 3년 간 정신분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했고, 이 과정을 통해 정신분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934-35년 그녀가 아동병원에서 통근 조수로 일하던 시기에 정신분석의로 일하던 Morgenstern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권유로 Dolto는 브르토노(Bretonneau) 병원 소아과에서 심리 치료 조수로 근무한다. 1938년에는 파리 정신분석협회에 가입하여 정신분석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학위논문 통과 후 소아과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Laforgue에게 정신과 의사의 권유를 받고,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로 1940년부터 1978년 까지 트루소(Trousseau) 병원에서 아동진료를 담당하였다. 매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12명의 아이들을 상담했는데 1년에 평균 38주를 근무했을 정도로 그녀는 인기가 많았다(Dolto, 1982/2007). 1938년부터 아동정신분석 작업을 해온 Dolto는 1940년 독일군의 진입으로 파리의 분석가들이 외국으로 떠나거나 항독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유일한 전문가가 되었다.

1976년 부모를 계몽하고, 어른들이 아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France Inter 라디오 방송에서 어린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상담을 수년 간 진행하면서 정신분석학을 대중에게 알렸다. 1980년에는 영아원인 녹색집(Maison Verte)을 설립하고, 자신의 정신분석 사무실에서 1988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린이들을 치료했으며 많은 저작들을 남겼다(Ledoux, 1995, 2003). 그녀의 정신분석 활동은 병원이나 분석실 등에 제한되지 않고, 방송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고통을 알아내어 치료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Dolto의 아동정신분석 이론의 개요

(1) 언어와 소통

Dolto는 그녀만의 독창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아동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무의식적 ‘심층 언어(langue de fond)’에 내재된 진실을 해독하고자 했다. 그녀는 말이나 상상 또는 독특한 경험으로 드러나는 아동의 언어를 섬세하게 감지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아동정신분석을 이론적 측면보다

* René Laforgue(1894-1962), Sokolnicka의 분석 제자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 분석가이다.

** Dolto는 Morgenstern의 영향으로 아동정신분석학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그녀에게서 성인의 자유연상을 대신할 수 있는 아동의 그림 기법을 배웠다.

는 실천과 신경증적 고통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접근했다. 또한 인간을 인간 상호간의 전달을 통해 인간화하는 전달의 존재로 이해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증언해주는 말’ 즉 언어가 없다면, 아이는 자신을 인간으로서의 주체가 아닌 ‘동, 식물적 대상(objet) 또는 사물(chose)’ 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Dolto, 1981a). 그녀는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신생아도 언어의 존재이며, 아기를 주변 환경의 심리적, 감정적 혼란을 그대로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존재로 확신했다. 따라서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말을 걸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주었다(Ledoux, 1995, 2003).

Dolto의 정신분석에는 선형적 해석의 도식 같은 것이 없었으며 각 아동의 ‘기본 어휘’ 의 요소들을 파악하여 말이 아닌 몸짓, 동작, 행동, 침묵 등으로 표현할 때조차도 그들의 낱말 하나하나를 해독했다.* 그녀에게 정신분석 치료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Dolto, 1982, 2007).

(2) 아기 주체(Infans)

Dolto는 ‘아동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동이 역동적 발달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과 표현들을 찾아내는 것’ 과 ‘아동의 욕망(désir)이 내적인 갈등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그를 주체(sujet)로 다시 세워놓을 수 있는 이해를 제시하는 것’ 이 아동정신분석의 최종 목적임을 강조했다(Ledoux, 1995/2003). 그녀는 아동을 심지어 태아까지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기의 탄생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태아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Dolto에 의하면 어머니-아버지-아동의 삼각 관계는 수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아동이 주체로서 타자인 부모와 맺는 관계는 중요하다(Ledoux, 1995, 2003). 출생 후 신생아는 냄새와 목소리로 함께 사는 존재(co-être)인 어머니와 연결되고 젖을 주는 어머니의 냄새나 목소리에 의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은 어머니의 젖가슴과 소리들을 자기 신체의 한 부분으로 지각한다. 즉 어머니라는 타자가 아기 주체의 중심이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아기 주체에게는 자기 신체의 절단과 같은 두려움으로 느껴지는데 이처럼 두려운 공생적 2자구도의 불연속성은 아동에게 결핍, 기다림, 되찾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아기 주체에게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자인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는 배우자와 있을 때 아동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데 이는 모성적 타자 이외의 것이 있음을 상징한다. Dolto는 아버지의 역동적 역할과 분리자(séparateur)**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신생아의 존재는 제3자가 나타남으로 비로소 어머니의 몸이나 존재와 구분된다고 보았다(Dolto, 1980).

* 예를 들어 아동이 정신분석가에게 “엄마 아빠는 나빠요” 라고 거듭 말할 경우 나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나쁜 것을 하나 그려보라고 하여 ‘나쁘다’ 라는 말이 아동의 개인적 경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Dolto, 1982/2007, p. 17, p. 31 참조). 또 다른 예로 아이가 말없이 발만 꼼지락거릴 때 Dolto는 “네 발이 내 눈에 안녕 하고 말하고 싶은가봐”, “네 입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눈은 그래 라고 하네” 의 식으로 어린 환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했다(op.cit. p.14).

** Lacan이 아버지를 ‘대상의 박탈자’ 라고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Nasio, 1994/ 2005, p.260 참조).

(3) 상징 생성적 거세(Castration symboligène)

Dolto의 거세 개념은 Freud의 거세 콤플렉스와는 다르다. 페니스의 절단의 위협과 환상이 아닌 언젠가는 금지되어야 하는 대상의 박탈과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발전 단계를 구획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아동이 지금까지 겪은 만족 양식을 포기하고 더 발전된 단계로의 입문을 의미한다.

젖줄 거세는 탄생과 공존하며 젖줄을 자르므로 입을 통해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며 태반과 분리됨은 출생의 상징적 계기를 만들어준다. 구강 거세는 젖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기는 젖가슴으로부터 박탈된다. 이 거세는 어머니의 몸속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의 한 부분과의 분리이다.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것임과 동시에 신생아의 것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신생아가 어머니의 젖이 나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문 거세는 배설 욕구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던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며 타자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를 의미한다(Dolto, 1984; Nasio, 1994, 2005). 아동의 신경생리학적, 정신적 발전은 젖줄의 차단, 젖떼기, 유동식과 우유 떼기, 신체기능의 의존성 탈피, 혼자 걷기, 팔약근의 정상 기능, 완전 자립의 각 단계별 거세를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Dolto, 1971).

IV. 프랑스 육아법의 특징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프랑스 육아법에 대한 도서와 다큐멘터리의 소주제 내용들을 공통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도출한 네 개의 핵심주제에 관해 설명하고 Dolto의 정신분석 이론을 접목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절제, 기다림 그리고 인내

프랑스 부모는 일찍부터 아이에게 좌절과 인내를 가르친다.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조차 기다림을 경험하게 한다. 프랑스 아이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엄마가 대화를 끝낼 때까지, 엄마가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프랑스 육아법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주는 것’ 이라고 했던 Rousseau(1762, 2007)의 충고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수면교육

프랑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밤마다 칭얼대는 아기에게 부모가 곧장 달려가는 대신 아기 스

스로 마음을 달랠 기회를 갖도록 ‘잠깐 멈추기(pause)’를 권한다. 아기는 자는 동안 많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이므로 조그맣게 우는 소리를 낼 때마다 안아주는 부모의 행동이 오히려 아기 스스로 수면 사이클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교육을 위한 ‘4개월의 적령기’를 놓친 경우 전문가들은 ‘울리기’를 처방한다. 저녁 시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아기를 침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아기를 울리기 전 아기가 깨어있을 때 엄마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는지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깨면 엄마가 한 번은 달래줄 거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잘 시간이니깐. 엄마가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 번은 가서 달래줄 거야. 하지만 밤새 그러지는 않을 거야” (Druckerman, 2012, 2013). Dolto는 언제나 아기에게 말을 해주고 사물의 진실을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놀라운 것은 젖먹이들까지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말할 때 아기들은 그 말을 이해한다(Dolto, 1987).

프랑스 부모가 어린 아기에게 폭 자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가 자립하고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것이다. Rousseau(1976, 2007)는 아이에게 밤과 낮에 상관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신체를 자연적으로 방임하여 항상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 아이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는 것이다. Thirion과 Challamel*은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엄마가 곧바로 와보지 않아도 스스로 잠이 들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olto에 따르면, 아기는 출생 시부터 언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감촉, 목소리, 몸짓의 언어를 알고자 하여 자신에게 말을 거는 타자에게 주의를 기울인다(Ledoux, 1995, 2003). 즉 신생아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하며, 그것은 공존재(co-etre)인 엄마에 의해 형성된다. 아기는 후각과 목소리를 통해 엄마와 연결되는데 그것은 아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에 의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Dolto, 1984). 탯줄이 잘리고, 태반의 피막들이 분리되는 출생은 하나의 거세로 간주될 수 있다. 피막으로 덮인 양수 속의 안전은 상실되며 이것은 아기가 겪는 최초의 상실이다(Dolto, 1981b).

프랑스식 수면교육에서 아기는 적어도 아침이 되기까지는 젖을 먹을 수도,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된다. 이것은 엄마와의 몸 관계로부터 단절(엄마의 구순거세)을 의미한다. 이미 겪은 최초의 상실 이후 매일 저녁 공존재인 엄마와의 단절을 반복함으로써 아기는 스스로 발전 단계를 구축해나가게 된다.

2) 기다리기(attendre)

프랑스의 심리학자 D. Pleux(2010)는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좌절하게 하는 것이며 그의

* Marie Thirion과 Marie-Josèphe Challamel은 『잠, 꿈, 아이(Le sommeil, le rêve et l'enfant)』의 저자이다.

한계를 인식하도록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의 취향이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내심을 가르친다. 예를 들면 부모의 대화에 끼어들려는 아이에게 ‘대화중이니 2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거나 쇼핑 중에 갑자기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는 것은 오늘의 계획이 아님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또한 소란을 피우는 아이에게는 ‘조용히 해(Silence)’ 나 ‘그만해(Arrête)’ 라는 말보다 더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단호한 어조의 ‘기다려(Attends)’ 라는 말이다.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가 기다림을 이겨내는 기술을 후천적으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듯 참을성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기다려’ 라고 하면서 매일 아이에게 인내심*을 연습시키며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한다. ‘엄마가 아기를 조금 기다리게 만들면, 아기의 정신에는 현실적 차원이 유입되기 시작’ 하며, 2-4세 아이들이 전적인 권한을 포기하고 견디게 되는 것은 부모가 부과한 약간의 좌절 덕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Druckerman, 2013/2014). 그들은 아이가 자제력을 배우는 것을 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의 방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진행과정으로 본다. 아이에게 세상에 내 요구보다 더 강한 요구를 지닌 타인이 존재함을 이해시키는 교육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인내와 일관성이다.

Dolto는 생명의 최초 순간인 자궁 안에서부터 욕망(désir)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다(Ledoux, 1995, 2003).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려는 욕망이 차서 세상에 나온 존재이다. 그러나 미숙한 아기의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타자의 도움을 필요하게 만든다. 타자, 그는 울부짖는 아기의 육체적 시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즉 어머니이다. 부모의 잠깐의 ‘기다림’ 이라는 요구는 아이에 대한 정신분석적 거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전의 확실한 만족과 욕구를 제공하던 타자의 강력한 요구이다. 아기는 처음부터 스스로의 욕망으로 인해 존재한 주체이기는 하지만 거세라는 ‘상징적 분리의 시련’ 을 겪으면서 독립된 주체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Dolto, 1984).

2. 자율과 규칙

Rousseau(1762, 2007)는 부모의 강한 권위와 단호한 제한으로 아이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데 익숙하게 만드는 것’ 이며, 부모로부터 쉽게 욕망을 충족하게 되면 아이의 욕망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조만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게 될 순간이 오는데 이 때 거절을 받은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보다 더 큰 괴로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 이처럼 길러지는 아동의 인내심은 만족지연능력으로 이어진다(EBS, 2014).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 즉 프랑스 육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adre(틀)’이다. ‘cadre는 ‘매우 단호한 제한이 존재하고, 부모가 그것을 엄격하게 강제한다’는 의미이다(Druckerman, 2013/2014).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엄하게 다루며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상적인 cadre는 부모가 어떤 부분에서는 엄격하지만 그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cadre의 핵심은 아이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일관된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심리상담가인 Bacus(2012/2014)는 ‘규칙은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며, 일관성 있는 지침들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칙이 없이 자란 아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프랑스 부모들은 1968년 이전에 그랬듯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안 돼(Non!’)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 돼(Non!’)보다 ‘그만(Arrête!’)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며, 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 George와 Brumauld(2012/2014)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부모가 정한 교육 원칙에 반하는 행동, 상황, 말 등을 아이에게 즉시 확인해주고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부모들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오른 쪽 신발을 오른 발에 신으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아이의 창의성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반드시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가르친다(Crawford, 2012/2013).

Dolto는 아이에게 항상 진실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출생의 진실, 가계의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Argand, Fery, Poulantzas, 1999). 또한 아이가 어떤 것을 물어올 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이에게 정신분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진실이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 역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인생에 있어 하나의 발판이 되며, 모든 거세는 분석 수행자의 정신 구조를 성립시킨다’(Dolto, 1982/2007). 그녀는 안전한 틀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해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원칙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한다.

기다림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규칙은 Dolto의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보면 ‘거세(castr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세는 주체의 욕망을 타자가 법으로 금지할 때 실현되는 과정으로 아이에게는 시련이다. 또한 거세는 ‘거역할 수 없는 말이나 행위이고 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작동 효과’를 지니게 된다. Dolto에게 거세는 만족을 거부하는 법에 의한 금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억압적이기만 한 법이 아닌 선도적이며 승화적인 법이다. 아이는 거세 과정을 통해 충동을 승화시켜 지금까지 겪은 만족양식을 포기하는 대신 더 발전된 즐거움(jouissance)로 입문하게 되는 것이다(Dolto, 1984). 아이는 거세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한편 Dolto(1977, 1990)는 세 살이 되면 아이는 식사 예절을 지키며 어른처럼 완벽하게 깨끗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아이들끼리만 따로 먹게 되면 식사 예절을 배우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아이들은 하루 네 번 정해진 식사와 간식시간이 아니면 먹지 않으며 어른과 같은 메뉴를 먹는다. 그것은 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4단계 코스로 된 점심 식단은 햄버거, 피자, 케첩 같은 것을 볼 수 없으며, 음식은 연령에 맞게 야채와 고기가 부드러운 음식으로 자르거나 으개서 제공된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균형 잡힌 식단으로 미각을 훈련하고 코스 요리 동안 식탁 예절도 함께 배우며, 집에 손님이 와서 늦게까지 있더라도 잘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프랑스 부모들은 기본생활습관 영역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 그 규칙을 지키게 하며, 생활 중에 아이들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 해도 될 때와 안 될 때의 차이를 상황을 예로 들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또한 ‘타인 존중’ 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지만 그 외의 것들**은 큰 틀 안에서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

Turkle은 Dolto의 책(Dolto, 2014)의 서문에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율성이며 더 큰 성장을 지지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면생활’ 이라고 했다. 그리고 Dolto(1998)는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무의한 규칙을 강요하지 말고 가능한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틀을 유지해야 하며 아이들은 그 틀을 벗어나려는 경험을 통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아동의 자율은 안전한 틀(cadre) 안에서 일찍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한 상태에서 가능한 일찍부터 자율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사랑 받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공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탐험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자유를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Dolto, 1998).

프랑스인들에게 예절은 존중과 동의어이다.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프랑스 아이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규칙을 배우기 때문이다. 체계가 아이들의 절제력을 키우고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Crawford, 2012, 2013).

*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허를 쑥 내밀었을 때 할머니는 아이들에 자세히 일러주었다. “ 네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해도 돼,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도 해도 돼. 그럴 때는 맨발로 있어도 되고 허를 내밀어도 되고 누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되고 (...) 너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걸 다 해도 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안 돼, 식탁에 있을 때도 안 돼, 엄마와 아빠가 있을 때도, 길거리에서도 안 돼. 그게 인생이야.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해” (Druckerman, 2013/2014, pp. 209-210 참조).

** 엄지손가락 빨기, 손톱 물어뜯기, 이불에 오줌 싸기 등

3. 권위와 존중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결정권을 아이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아이가 점심으로 초콜릿 빵을 먹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집으로 오면 집안 곳곳을 구경 시켜주며, 무엇을 하기 전에 아기에게 말을 해주는 부모도 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기저귀를 갈고 있다’, 집에 손님이 오기 전에 ‘벨이 울리고 몇 초 뒤에 문이 열릴 것이다’, ‘유아원에 가는 길이고, 저녁에 널 다시 데리러 갈 것이다’ 등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말로 설명을 해준다(Druckerman, 2013, 2014; EBS, 2014). 이처럼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기에게도 주체적 존재로 대하며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의 새 일원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Dolto(1977, 1990)는 ‘아이에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고 했다. 세상에는 많은 제한이 있고, 아이는 커가면서 스스로 그 제한들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귀를 기울여 그 동기를 알아내고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olto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아이들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 고집을 부릴 때는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아이에게 자신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어른의 자리까지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어른은 아이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Halmos, 2012, 2013).

프랑스 부모들은 소리치지 않고도 권위를 확립한다. 프랑스 아이들은 말대꾸를 하지도 않고 질질 끄는 협상을 시도하지도 않는다. 많은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들과 권력을 나눠가지는 대신 자연스럽게 편안하면서도 차별한 권위를 보여준다. ‘결정은 내가 한다’, ‘명령은 내가 한다’ 라는 말로 누가 ‘대장’ 인지를 분명히 한다. 그들은 독재자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권위 있는 어른일수록 아이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나눈다. 어떤 일을 금지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며, 아이가 어른들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육한다. 그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수직 관계임을 명확히 한다(Crawford, 2012, 2013). 친구처럼 평등한 관계로 아이를 대하며, 아이 중심의 세상에서 생존하고자 인간됨을 쓰는 한국의 부모들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Dolto(1977, 1990)에 의하면 아이는 아주 일찍부터 진실이 담긴 인간적인 말에 매우 민감하다.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아이에게 소리 지르거나, 꾸짖거나, 때리는 것이 때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말로 설명해 주는 것에서 오히려 아이는 안전감과 일관된 평온함을 더 느끼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설명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또한 Dolto는 자녀의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는 구강기, 항문기를 위한 어머니이고 붙잡았다가 내버리는 어머니 이어야 한다(Nasio, 1994, 2005).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대할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아이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지켜보고 바라봐주는 이러한 ‘거리 두기’를 통해 부모 스스로의 권위를 확립하고, 자녀로부터 존중 받는다. 친구가 아닌 통제권을 지닌 사령관으로서의 권위이다. 프랑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이유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야 한다고 배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Pleux(2010)는 ‘좋은 권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권위란 자녀의 인성 발달을 돕기 위해 곁에서 보호하고 사랑과 자극을 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좌절감도 맛보게 하며 통제와 벌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사랑과 좌절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 정신의학자인 Kochman(2014)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타인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 길러지며 특히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즉시 야단을 치고 필요할 때는 벌을 주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벌을 주는 목적은 아이가 한계를 넘었고,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로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있다.

4. 독립성과 자립심

프랑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옷과 짐을 직접 들고 다니며 외출할 때 자기가 들 수 있는 짐을 챙기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테이블 세팅을 하고 식사 후에는 자기가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정리한다. 프랑스 아이들의 자립심은 수면습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아이를 부모의 침대에서 재우는 대신 아기 방에서 혼자 자도록 하며, 생후 4개월 즈음에는 홀로 잠드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또한 만 세 살 아동의 90% 이상이 유아학교에 다니며, 방학에는 4세부터 참가하는 캠프 ‘콜로니 드 바캉스(colonie de vacances)’가 있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훈련을 한다. 방학동안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7-8일씩 시골에서 자연 체험학습을 하며,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연극, 카약, 천문 캠프와 같은 전문 캠프로 간다(Druckerman, 2013, 2014).

이처럼 독립을 허용하고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프랑스 양육에서 큰 부분이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자율을 주고자 노력한다. Dolto에 의하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자율적인 존재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어머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이미 유일하다(unique). 아버지, 어머니

나라는 중재자(médiation)를 통해 그 자신이 생을 선택해서 스스로 태어난다. 그는 삶 그 자체이다. 그는 계속 발달하여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달이 차면 세상에 나온다 (Dolto, 1985).

Dolto(1998)는 아이 스스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상태에서 혼자 남겨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존재로 아이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교육이란 자율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며, 아이에게 홀로 그의 원동력과 욕망의 힘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규칙, 기준과 중요한 제한들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아이는 세 살부터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몸을 청결히 하고 세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 엄마는 혼자서 하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주며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말을 통한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의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의 엄마는 보통 자기 아이를 신체적으로 너무 싸고도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Dolto는 아이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남편에게 신경을 쓰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Dolto, 1982, 2007).

처음에는 분리된 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던 아이가 들어오고 내보내는 구순적, 항문적 필요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의 대상을 분리시킨다. 이 때 엄마는 아이를 자신의 부분적 대상으로 삼는데 이 때 ‘교육을 통해 분화 환상의 상상적 인플레이션을 도입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머니이다’ (Dolto, 1984). Dolto에게 분화는 병리현상의 한 측면이며, 언어는 그 해독제 역할을 한다. 아이가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교육할 때 ‘말의 중재’로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이의 분화를 돕는 해독제의 역할이다.

Dolto가 보기에 나쁜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엄마나 나쁜 엄마의 존재는 사회적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지 엄마는 단지 엄마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아이가 크면서 자율적이 되길 원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인 부분적 대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아이의 오이디푸스 단계를 넘 추거나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 아이를 향한 자신의 오래된 옛 향유가 거세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Ledoux, 1995, 2003).*

한편 Dolto(1977, 1990)는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일찍부터 사회적 생활이 필요하며, 만약 부모가 아이를 놀이터에 데려가 두세 시간씩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해줄 시간이 없다면 그냥 집에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한다. 만약 또래의 아이들이 여럿 있다면 함께 모아서 가짜 유치원을 만들어 놀게 하라고 덧붙였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노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으므로 방이나 부엌 등 장소를 정하여 제공하고 통제해야 한다. 또 놀이 후에는 정리 상자에

* Dolto는 ‘전오이디푸스적 부모들’에 관해 그들의 억압되어 온 오래된 옛 충동은 자신의 아이를 보았을 때 되 살아난다고 했다. 엄마는 엄마인 동시에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자신의 여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것은 아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아이에게 성이니 되려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반면에 이런 욕망이 없는 엄마는 자기 아이를 ‘끈적한 사랑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향을 갖는다(Ledoux, 1995, 2003, p.62 참조).

이름을 붙여준 후 자기 물건을 스스로 치우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V. 논의 및 결론

20세기 후반기의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아동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다. 이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성인기로 가는 하나의 유기체로 여겼지만 심리학과 소아의학의 발달로 태아와 젖먹이 시기부터 관심을 두고 관찰하기 시작했고, 어린 아기도 인간으로서 주체적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데 정신분석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생에서 아동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했고, 실제로 정신분석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의 고통을 발견하고 마주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아동정신분석의 대가 Dolto는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아동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과 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고통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언어를 해독했다. Dolto(1977, 1990)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동은 출생 시부터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설명해주면 아동의 발달 기간 동안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가 짐작하거나 아는 고통의 이유를 말로 설명해주면 아이는 자신감과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프랑스 육아의 특징들을 프랑스 부모들에게 육아의 기준을 제시했던 Dolto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프랑스 육아법이 한국의 부모들에게 제시하는 육아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기가 자는 도중에 잠에서 깨어 울면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는 한국 부모들과는 달리 프랑스 부모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안아주는 대신 몇 분간 관찰하며 아기가 우는 이유를 찾기 위해 유심히 살핀다. 그들은 아이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으로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약간의 좌절을 제 공함으로써 아이 스스로 그 좌절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양육방식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기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지키며 얼러주는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잠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며 분명한 요구 없이 우는 아이는 울다 지치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Brazelton, 1990; Super & Harkness, 1997)과 대체로 일치한다. 영국의 통치 영향으로 서구화된 홍콩의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자녀와의 물리적 접근성을 덜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유가효, 1999).

단계별 거세를 거치면서 아이는 독립적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 떼쓰는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요구대로 들어준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막게 되는 것이다. 많은 한국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

는 바로 어려서부터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부모가 민감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잠깐 멈춤으로 아기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기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믿는 것으로부터 상호존중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과 프랑스 어머니의 양육불안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한국 어머니의 불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역할 효능감에 대한 불안과 자녀에 대한 염려가 높은 부분을 차지했다(EBS, 2014, 강수경 외, 2014).* 자신보다 아이를 우선으로 돌보며 최선을 다해온 한국 어머니들의 불안도가 높은 이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양육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오미연, 2005; 강수경 외, 2014). 프랑스 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이유로는 잘못된 행동을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훈육하고(한지혜, 임영의, 2005), 분명한 한계를 정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교육하기(Bornstein et al., 1996)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일찍부터 시작된 공교육 체제와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확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은미, 2009). 반면에 한국 부모들은 양육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독립적 판단을 하는 프랑스 부모들(한지혜, 임영의, 2005)과 비교해 볼 때 주변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양육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강수경 외, 2014).

아이에게 늘 ‘그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좋은 부모는 아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아니’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고도 단호하게 야단을 치지 못하거나, 습관을 바로잡아야 할 때 아이의 잘못을 눈감아줄 때 부모의 이런 태도는 아이의 불안감을 더 키워줄 뿐이다. 양육 과정에서 아이의 불안정한 행동을 보며 부모가 자신없어하고 당황하면 할수록, 아이는 직감으로 이를 감지하고 감정이 더 불안정해진다. 이런 불안감이 심할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Kofman, 2014). 즉 부모는 아이가 ‘안 돼’ 라는 말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부모의 일관된 원칙은 아이가 신뢰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의 중심은 아이가 아닌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이는 가족의 한 일원이고 그 중심에는 항상 부모가 자리한다. 이 사실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게 된다. 이러한 권위는 아이를 겁주며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와 소통을 통한 진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 엄격함과 자율적 선택의 조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의사소통이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들과 소통함으로써 상처가

* 양육효능감 하위 변인 중, 한국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4점 만점에 3.05점으로 나타나 높은 애정도를 보여주었으나 양육 불안은 2.25점, 프랑스 어머니가 1.95점으로 나타난 데 비해 높은 불안도를 보였다.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Dolto(1977/1990)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서 사실을 말해주며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에게 반응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금 한국의 부모들은 무너진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가정의 중심 자리를 아이에게 내주었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결정권을 아이에게 뺏긴 경우도 있다. 양육행동이 각 문화권의 고유한 특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국외의 선행연구(Harkness & Super, 1995)처럼 우리 사회의 양육가치관은 서구 사회의 양육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는데(Bornstein & Cote, 2004; Rubin & Chung, 2006)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종희, 2007). 한국과 미국 부모들과는 달리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며, 그들의 일관된 양육 신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한국 부모들도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모의 권위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교육의 의미는 자율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Dolto(1998)는 부모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모의 욕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만큼 아이를 내버려두라고 조언한다. ‘교육은 자율성의 성장이고, 동일시와 주체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사물을 표상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단거리적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다’ (Dolto, 1982).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거세를 부여해야 한다. 놀이터에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형제간 다툼이 생겼을 때 프랑스 부모는 늦게 개입한다. 아이들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줌으로써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은 아이의 가장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이며, 아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지지하는 주체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아이의 자율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예측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프랑스 육아법의 특징과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Dolto의 정신분석적 통찰을 살펴보면서 걱정과 염려의 시각으로 자녀의 탐험적 활동을 대하는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실패할 경우에 자세히 설명해 주며, 아이들이 일찍부터 자율적 지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2014).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프랑스 어머니의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및 양육불안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34(6), 539-555.
-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가호(1999). 첫부모됨과 영아기 육아에서의 문화 간, 세대 간 연속성과 비연속성: 한국, 중국, 미국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밀레니엄 시대의 아동 환경 변화와 아동학의 기여, 15-42.
- 유승호(2014. 12. 9). 프랑스식 육아법 열풍... 모래. 물감놀이 불티.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에서 2016년 11월 30일 인출.
- 윤중희(2007).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에 나타난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 탐색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1), 65-83.
- 조은미(2009). 한국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프랑스 유아교육 시스템 비교분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지혜, 임영희(2005). 취학 전 자녀교육에 관한 프랑스 어머니들의 생각-파리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6(2), 129-159.
- Argand, C., Fery, P., Poulantzas, A.(1999). Le mircle Dolto, *Lire*, 32-44.
- Ariès, P.(2003). 아동의 탄생(*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문지영 역). 서울: 새물결 출판사. (원전은 1973에 출판)
- Bacus, A.(2014). 프랑스 엄마 수업(*100 façon de se faire obéir*). (최연순 역). 서울: 북로그컴퍼니. (원전은 2012에 출판)
- Born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Wright, B.(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62-676.
- Bornstein, M., & Cote, L.(2004). Mother's Prenting Cognitions in Cultures of Origin, Acculturating Cultures, And Cultures of Destination, *Child Development*, 75(1), 221-235.
- Brazelton, T. B.(1990). Crying and colic,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1(4), 349-356.
- Crawford, C.(2013). 프랑스 아이들은 왜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Why french children don't talk back*). (하연희 역). 파주: 아름다운 사람들. (원전은 2012에 출판)
- Dolto, F.(1971). *Le cas Dominique*, Paris: Seuil.
- Dolto, F.(1980). *Les Cahiers du nouveau-né*, N. 3, Stock.
- Dolto, F.(1981a). *La Difficulté de vivre*, Paris: Interéditions.
- Dolto, F.(1981b). *Au jeu du désir*, Paris: Seuil.
- Dolto, F.(1984). *L'image inconsciente du corps*, Paris: Seuil.
- Dolto, F.(1985). *La cause des enfants*, Paris: Robert Laffont.
- Dolto, F.(1987). *Tout est langage*, Paris: Vertiges-Carrère.
- Dolto, F.(1998). *Les étapes majeures de l'enfance*, Paris: Folio essais.

- Dolto, F.(1990). *아이가 태어나면(Lorsque l'enfant paraît)*. (최혜륜 역). 서울: 샘터(원전은 1977에 출판).
- Dolto, F.(2007). *자기를 찾는 아이들(Séminaire de psychanalyse d'enfants, tome 1)*. (양영자 역). 서울: 새물결 출판사(원전은 1982에 출판).
- Dolto, F.(2008). *어린이는 어떻게 어린이 되는가(Enfances)*. (표원경 역). 서울: 도서출판 숲(원전은 1986에 출판).
- Dolto, F.(2014). *Quand les parents se séparent*, Paris: Points.
- Druckerman, P.(2013). *프랑스 아이처럼(Bring up BéBé)*. (이주혜 역). 서울: 북하이브(원전은 2012에 출판).
- Druckerman, P.(2014). *프랑스 육아법(BéBé day by day)*. (김윤희 역). 서울: 경향비피(원전은 2013에 출판).
- Filliozat, I.(2011).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말썽꾸러기는 없다(J'ai tout essayé!)*(문신원 역). 서울: 프리엄박스.
- Freud, A.(1956). *Initiation à la psychanalyse pour éducateurs*, trad. fr. Toulouse: Privat, 1968.
- Freud, S.(1909). *Analyse d'une phobie chez un petit garçon de 5ans (le petit Hans)*, trad. fr. in *Cinq psychanalyses*, Paris: PUF, 1954.
- George, G. & Brumauld, C.(2014). *프랑스 엄마처럼 똑똑하게 야단치라(J'en ai marre de crier)*. (임은신 역). 파주: 아름다운 사람들(원전은 2012에 출판).
- Halmos, C.(2013). *엄마, 왜 그런거예요?(Dis-moi pourquoi)*. (이희정 역). 서울: 엑스오북스(원전은 2012에 출판).
- Harkness, S., & Super, C. (1995). Culture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2, 211-234). NJ: LEA.
- Klein, M.(1955). The psychoanalytic play technique,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New Directions in Psychoanalysis*, Londres, Tavistock, *La psychiatrie de l'enfant*, 1, 1981, vol. XXIV.
- Kochman, F.(2014). *프랑스 부모들은 권위적으로 양육한다(Guide de Survie pour Parents de débordes)*. (이성엽 역). 안양: 맑은숲.
- Ledoux, M.(2003). *프랑수아즈 돌토- 그의 삶과 사상(Introduction à l'oeuvre de Françoise Dolto)*. (표원경, 이오갑 역). 서울: 숲(원전은 1990에 출판).
- Morgenstern, S.(1928). La psychanalyse infantile, *L'hygiène mentale*, n° 6., 158-169.
- Morgenstern, S.(1930). La psychanalyse infantile et son rôle dans l'hygiène mentale, *Revue française de psychanalyse*, t. IV, no. 1, pp. 136-162.
- Nasio, J. D. 외(2005). *프로이트에서 라캉까지 위대한 7인의 정신분석가(Introduction aux oeuvres de*

Freud, Ferenczi, Groddeck, Klein, Winnicott, Dolto, Lacan. (이유섭 외 역). 서울: 백의(원전은 1994에 출판).

Pleux, D.(2010). *Un enfant heureux*, Paris: Odile Jacob.

Rousseau, J. J.(2007). *에밀(Emile, ou de l'éducation)*. (김평옥 역). 서울: 예문당(원전은 1762에 출판).

Rubin, K., & Chung, O.(2006).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Hove, NY: Psychology Press.

Super, C. M. & Harkness, S.(1997). The cultural structuring of child development. In J. W. Berry, P. R. Dasen & T. S. Saraswath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second edition. Vol. 2 :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1-39. Boston: Allyn & Bacon.

Thirion, M., & Challamel, M. J.(2011). *Le sommeil, le rêve et l'enfant*, Paris: Ed. Albin Michel.

EBS(2014). 가족 쇼크 5부: 행복한 훈육, 프랑스 육아의 비밀, 2014.11.25. 방송. <http://home.ebs.co.kr/docuprime/reViewChargeOpen>

Abstract

A study on the French Method of Childrearing Based on the Child Psychoanalytic Perspective : Focusing on Françoise Dolto

Cho, Hee Yeon

(Dept. of Child, Hanyang Cyber University)

Lee, Hwa Do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method of childrearing which is drawing attention recently based on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François Dolto, the so-called French people's godmother, the child psychoanalyst. Dolto is a psychoanalyst who represents France and is the unique character who was loved by the public and established unique frame of child psychoanalytic analysis by combining psychoanalysis and pediatrics. She cherished communication through conversation with infants and toddlers and has perceived even the babies who can not speak yet as a lingual being who understands words.

This study has selected domestically published books on French method of childrearing and documentary broadcasting program which dealt with childrearing, classified the common theme and deducted four core words, which are temperance, perseverance, waiting, autonomy and rule, authority and respect and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These core themes have been explained based on Dolto's theory of communication, infans, castration, subject and others and desire etc. Also, a new direction has been proposed for the child education in households and childrearing by Korean parents through French method of childrearing.